

대학 제자의 정체성과 삶 (살전 2:4)

| | |
|------|------------------|
| 본문 | 살전 2:4 |
| 설교자 | - |
| 장소 | 하나된교회(경기 안산시) |
| 일시 | 2024-08-22 19:00 |
| 예배분류 | (본부)전도학교메시지 |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제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틀린 것이 제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생각하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라고 하였다. 박애주의자, 신비주의, 율법주의 사람들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중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했을때 외국인은 가족, 친구, 삶의 터전을 이야기 한다면; 한국인은 돈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돈으로 보이니까, 돈을 쫓는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그것이 제자이다.

근본은 아는 사람이 제자이다. 근본을 아는 사람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근본을 놓치면? 대학제자가 나랑 무슨상관인가 라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는 대학 제자야 라며 맹신할 수 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제자이다. 제자가 하는 일은 영적인 부분을 돕는 사람이다. 모든 가치관을 여기에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실제 현장의 능력이 나타난다. (고전 2:2-5) 복음을 받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모든 것의 시작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뭘 알고, 뭘 누리냐가 제자의 시작이다.

이 답이 있는 사람은 따라가는 대상이 다르다. 당연하지만 제자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마 16:24) 제자는 복음증거하는 사람이다.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흑암 물러간다.

제자는 삶의 중심이 다르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살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먼저 은혜로 누리게 하신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 삶을 살면 나름대로의 열매와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것을 현실이라고 한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무응답이 온다. 내 진짜 위로와 평안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응답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표를 두고 인도받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있음에도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 그 문제는 내가 복음을 더 깊게 깨달아가는 시간표이다. 또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다.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가(소극) 내가 답으로 붙잡아야 하는것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고전 15:10)